

「 感 冒 」^{주1)}

金 丙 祖

一. 定 義

感冒는 風邪를 接觸하고 感染되어 코막힘·콧물·재채기·머리아픔·오싹오싹추움·發熱·全身不快 等の 症狀이 나타나는 一種의 疾病이다. 흔히 보이는 外感病中의 하나이다.

感冒의 뜻을 풀어보면 感은 病邪를 받아서 느낀다는 뜻이고 冒는 病邪가 皮膚에 닿고 人體가 뒤집어 쓴다는 뜻이다. 즉 感冒는 人體가 外界의 風邪에 肝炎되어 뒤집어 써서 된 疾病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冒風·冒寒·傷風·重傷風·小傷寒이 있다. 만일 廣範하게 流行하면 時行感冒라 한다.

二. 歷 史 沿 革

一. 『內徑』에서 가장 먼저 感冒의 主된 原因과 症狀을 提出하였고 後世에 進一步하게 風邪가 主가 되고 아울러서 보통 섞여서 感染되어 人體가 損傷함을 明確하게 하였다.

『素問』의 『骨空論』에서는 “風邪가 밖에서 안으로 侵入하면 人體는 추워서 덜덜떨고 땀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몸이 무겁고 오싹 오싹 춥다...”^{주2)}라 하였고, 『素問』의 『風論』에서는 “風邪가 人體를 損傷함에 더러는 寒

熱이 된다...”^{주3)}라 하였고, 『素問』의 『熱論』에서는 “傷寒의 첫날에 巨陽이 이를 받는다. 때문에 머리와 목이 아프고 허리와 척추 뼈가 뻣뻣하다.”^{주4)}라 하였다. 이는 感冒의 發病 要因은 風邪에 있고, 主된 病狀은 寒熱·머리아픔·몸아픔이 主가 됨을 指摘한 것이다.

『臨證指南』의 「風」에서는 “대개 六氣中에서 風만이 五氣와 兼할 수 있다. 만일 寒을 兼하면 風寒이 되고, 暑를 兼하면 暑風이 되고 濕을 兼하면 風濕이 되고 燥를 兼하면 風燥가 되고 火를 兼하면 風火가 된다. 대개 風은 나머지 五氣를 복돋워 움직이게 해서 人體를 損傷시킨다. 때문에 百病의 우두머리라 하였다.”^{주5)}라고 하였다. 『醫學源流論』의 『傷風難治論』에서는 “모든 人體가 風寒에 感染되면 머리아픔·발열·기침·콧물이 나타난다. 俗稱해서 傷風이라 한다. 바로 當時에 流行하는 섞여서 感染된 것이다.”^{주6)}라고 描寫하였다.

二. 『傷寒論』에서는 이미 感冒를 輕重으로 區別하여 인식하였고, 아울러 後世醫家は 이를 좇아서 繼續하여 使用하였다.:

『傷寒論』에서는 傷風과 感寒의 主次에 根據하여 表虛와 表實로 나누었다. 예를 들면

註3) “風之傷人也, 或爲寒熱, ...”

註4) “傷寒一日, 巨陽受之, 故頭項痛, 腰脊強”

註5) “蓋六氣之中, 惟風能全兼五氣, 如兼寒則曰風寒, 兼暑則曰暑風, 兼濕曰風濕, 兼燥曰風燥, 兼火曰風火, 蓋因風能鼓蕩此五氣而傷人, 故曰百病之長也.”

註6) “凡人偶感風寒, 頭痛發熱, 咳嗽涕出, 俗謂之傷風, 乃時行之雜感也.”

註1) 여기에 나오는 人名·地名 等 固有名詞의 中國音에 대한 우리말 표기는 『씨계이시스템』 (김용욱,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통나무, 1986년, PP.349-361)에 의한 것이다.

註2) “風從外人, 令人振寒, 汗出頭痛, 身重惡寒.”

『傷寒論』의 『辯太陽病脈證并治』에서는 “太陽病의 症狀이 머리아픔·發熱·땀이 남·바람을 싫어함이면 桂枝湯이 이를 主되게 治療한다”^{註7)}라고 했고 “太陽病의 症狀이 머리아픔·發熱·몸아픔·허리 아픔·뼈마디 주심·바람 싫음·땀이 없으면서 숨이 가쁘이면 麻黃湯이 이를 主되게 治療한다”^{註8)}라고 하였다. 輕과 重 兩證의 다른 治療法을 提出한 것이다.

『重訂通俗傷寒論』의 「傷寒本證」에서는 “小傷寒은 一名 冒寒이라고 하고 通稱하여 四時感冒라 한다. 만일 風을 뒤집어 쓰고 寒에 感染하는 類는 모두 이 病에 屬한다.”^{註9)}라고 하였다.

『時病論』의 「春傷於風大意」에서는 “...저 風邪로 因한 病은 輕과 重으로 區分된다. 가벼우면 冒라 하고 무거우면 傷이라 한다. ...예를 들면 寒熱과 땀이 남은 風邪가 衛分을 損傷한 것으로 傷風病이라고 하고; 코 막히고 기침남은 風邪가 表部를 뒤집어쓰워 冒風病이라고 한다...”^{註10)}라 하였다.

三. 『諸病源候論』에서 부터 또한 당시 流行하는 病邪가 病을 일으킨다는 論點을 제창하였다: 魏(隋)나라 때 『諸病源候論』의 「時氣病諸候」에서는 時行病은 春철에 따뜻해야 하는데 도리어 춥고, 여름철에는 더워야 하는데 도리어 차고 가을철에 서늘해야 하는데 도리어 덥고 겨울에 추워야 하는데 도리어 따뜻하다. 그 철이 아닌데 그 氣가 있다.

註7) “太陽病, 頭痛, 發熱, 寒出, 惡風, 桂枝湯主之.”

註8) “太陽病, 頭痛, 發熱, 身痛, 腰痛, 骨節, 惡風, 無汗而喘者, 麻黃湯主之.”

註9) “小傷寒, 一名冒寒, 通稱四時感冒, 如冒風感寒之類, 皆屬此病.”

註10) “...夫風邪之爲病, 有輕重之分焉, 輕則曰冒, 重則曰傷...如寒熱有汗, 時風傷衛分, 名曰傷風病也; 鼻塞咳嗽, 是風冒於表, 名曰冒風病也...”

一年中에서 病에 걸린 시간이 길건 짧건 간에 비슷한 것을 거느린 것이다. 이것은 時行의 氣이다.”^{註11)}라고 했고, “저 時氣病 이것은 모두 그해의 철이 調和롭지 못하고 따듯함과 서늘함에 節度를 잃어서 人體가 어긋난 氣에 感染하여서 病이 생긴 것이다. 대다수 서로 肝炎하기가 쉽다.”^{註12)}라고 하였다.

위안(元)나라 때 주 단시(主丹溪)는 『丹溪心法』의 「時氣篇」에서 “時氣는 바로 四時의 철에 갑자기 厲의 氣가 사람들 사이에 流行하는 것이다. 모든 四時의 철이 바르지 못하면 이 時氣가 流行한다. 만일 봄철에 따뜻해야 하는데 도리어 춥고, 여름에 더워야 하는데 도리어 서늘하고, 가을철에 서늘해야 하는데 도리어 덥고, 겨울철에 추워야 하는데 도리어 따듯하다. 이런 철에는 바르지 못한 氣가 流行한다.”^{註13)}를 제출하였다.

感冒의 病因은 六淫以外에도 時行의 氣가 있어 또한 比較的 강한 傳染性을 지니고 있다.

四. 『丹溪心法』에서는 本病의 治療大法을 確立하였다. 그 뒤에 虛弱性體質의 感冒에 대하여 또한 扶正達邪의 處理原則을 補유하였다.

『丹溪心法』의 「中寒」에서는 “傷風이 肺에 屬하는 것이 많다. 辛溫이나 辛涼의 方劑로 이를 發散하는 것이 적당하다.”^{註14)}고 했다.

註11) “時行病者, 是春時應暖而反寒, 夏時應熱而反冷, 秋時應涼而反熱, 冬時應寒而反溫, 非其時而有其氣, 是以一歲之中, 病無長少, 率相似者, 此則時行之氣之氣也.”

註12) “夫時氣病者, 此皆因歲時不和, 溫涼失節, 人感乖戾之氣而生病者, 多相染易.”

註13) “時氣者, 乃天時暴厲之氣流行人間, 凡四時之令不正者, 則有此氣行也. 若春應溫而反寒, 夏應熱而反涼, 秋應涼而反熱, 冬應寒而反溫, 此時行不正之氣也.”

註14) “傷風屬肺者多, 宜辛溫或辛涼之劑散之.”

『仁齊直指方』의 「諸風篇」에서는 傷風方論 중에서 “風邪를 感冒하여 發熱 머리아픔, 기침, 목소리가 무거움, 콧물과 침이 진하고 끈적끈적거림의 症狀이 나타난다.”^{註15)}를 治療하는데 먼저 參蘇飲을 使用할 것을 제창하였다.

『證治匯補』의 「傷風」에서는 “虛弱한 사람이 風에 損傷받았는데 누차 感染하여 發生하면 形氣와 病氣가 虛한 者는 또한 마땅히 속을 補하면서 和解法을 佐로 한다. 만약 오로지 發散에만 빠지면 脾氣가 더욱 虛해지고 腠理가 더욱 성글게 되고 病邪는 虛한 틈을 타고 들어가 病이 도리어 甚하여질까 두렵다.”를 제창하였다.

『醫學心悟』의 「論汗法」에서는 “……모든 一切의 陽虛한 患者는 모두 補中發汗이 適當하고, 一切의 陰虛한 患者는 모두 養陰發汗이 適當하다. 熱을 낀 患者는 모두 清涼發汗이 適當하다. 寒을 낀 患者는 모두 溫經發汗이 適當하다. ……”^{註10)}라고 인식하였다.

『血證論』의 「感冒」에서는 “血家가 가장 꺼려하는 것은 感冒이다. 왜냐하면 陰血이 損傷을 받으면 發汗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人體의 밖을 護衛하는 氣는 太陽膀胱에서 생겨서 肺에서 흐트러뜨려 配布한다. 血家は 肺陰이 不足하면 壯火가 氣를 먹어서 밖으로 흐트러뜨려 到達되지 못한다. 때문에 衛氣가 虛寒하여 쉽게 外感을 불러들인다. ……만일 보통사람의 治療法으로서 麻黃·桂枝·羌活·獨

活을 사용하면 더욱 肺津이 損傷받게 된다. 肺氣가 더욱 束縛되어 도달할 수 없게 된다. ……”^{註17)}라 하였다.

三. 範 圍

本篇에서는 보통 感冒·傷風 및 時行感冒를 主된 內容으로 토론하였다. 西醫學의 여러 종류의 上呼吸道感染性疾病을 포괄한다. 모든 보통 感冒·流行性感冒·病毒性 및 細菌感染으로 일어난 上呼吸道急性痰症을 포괄한다. 모두 本篇을 參考하여 治療를 할 수 있다.

四. 病 因 病 機

一. 病因

六淫의 病邪와 時行病毒이 人體에 侵入하여 發病한다.

(一) 六淫

1. 風이 主된 原因이다. 風이 봄철의 주기이지만 그것은 六氣의 우두머리가 되어 四時中에 흘러 다니며 움직인다. 때문에 外感病은 風邪가 보통 先導가 된다.

또한 風邪의 「太陰陽明篇」에서는 “風邪에 損傷입는 者는 上部가 먼저 여기에 感染한다.”^{註18)}는 記載가 있다

2. 風邪는 보통 다른 病邪를 끼고 人體를 損傷한다. 風邪가 六淫의 우두머리지만 다른 季節에 또한 흔히 기타의 氣에 있는 時氣와 相合하여 疾患이 된다. 때문에 本病은 일년 내내 發生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깊은 가을과 겨울철에는 風寒相合인 경우가 많고; 봄철에는 風熱相合이 많이 보이고; 가을철에는 風燥相合이 많이 보이고; 여름철에는 暑濕이 이 氣의 時令이다. 때문에 風邪에 濕을 끼는

註18) “傷於風者, 上先受之.”

註15) “感冒風邪, 發熱頭痛, 咳嗽聲重, 涕唾稠粘.”

註16) “……凡一切陽虛者, 皆宜補中發汗, 一切陰虛者, 皆宜養陰發汗, 扶熱者, 皆宜清涼發汗, 扶寒者, 皆宜溫經發寒……”

註17) “血家最忌感冒, 以陰血受傷, 不可發寒故也. 然血家又易感冒, 以人身衛外之氣, 生於太陽膀胱, 而散布於肺. 血家肺陰不足, 壯火食氣, 不能散達於外, 故衛氣虛寒, 易召外感. ……若詔常人治法, 而用麻桂羌獨愈傷肺津. 肺氣益束而不能達……”

疾患이 흔히 보인다. 겨울과 봄에는 氣候變化가 많다. 때문에 임상에서 겨울철과 봄철에 發病率이 높고 風寒과 風熱의 兩證이 많이 보인다.

3. 철이 아닌 病邪가 人體를 損傷한다. 이른바 철이 아닌 病邪는 일반적으로 그 철이 아닌데 그 氣가 있는 경우이고 四時六氣가 정상과는 반대로 太過하거나 不及하여 人體를 損傷한다.

(二) 時行病毒

이는 傳染性이 있는 時行病毒이 人體를 침범하여 病이 된 것으로 四時의 時令이 바르지 못하여 그 철이 아닌데 그 氣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때문에 四時사철에 갑자기 厲의 氣가 사람들 사이에 流行한다. 그 發病特點은 發病이 빠르고 病情이 무거우며 광범위한 流行性이 있다. 季節性에 국한 하지 않는다. 六淫이 또한 왕왕 時行病毒을 쉽게 기어 人體를 損傷하여 發病한다.

二. 病機

(一) 밖을 護衛하는 機能이 弱해져 外邪가 틈을 타고 침범하여 發病한다. 外邪가 人體를 침범하여 發病할지는 精氣의 強弱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素問』의 「遺篇」인 「刺法論」에서는 “正氣가 안에 있으면 士氣가 침범할 수 없다.”^{註19)}라 하였고, “갑자기 疾風暴雨를 만나도 病이 되지 않는 것은 대개 虛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病邪는 홀로 人體를 損傷하지 못한다.”^{註20)}라 하였다. 正氣가 不足하거나 밖을 護衛하는 機能이 일시에 低下하면 흔히 결정적인 要因이 되어 동시에

病邪를 感染한 輕重과 더불어 또한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肺衛의 調節機能이 잘 안되는 흔한 原因:

(1) 氣候가 돌변하고 六淫이 함부로 잔학한 짓을 하고 冷熱이 正常을 잃어 버리고 밖을 護衛하는 氣가 제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虛邪賊風이 人體를 損傷한다.

(2) 생활의 起居가 적당하지 않고 추위와 더위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면 옷을 갈아 입고 모자를 벗고 서늘한 것을 탐내고 이슬 맞으며 잠을 자고 바람과 비를 씌는 등으로 하여 外邪가 틈타 侵犯한다.

(3) 피로가 지나치고 체력이 損傷되고 肌肉腠理가 성글고 營衛가 調和롭지 못해서 外邪에 感染한다.

(4) 平素의 體質關係로 因하여 內外가 서로 끌어 당겨서 發病한다: 평소 몸이 虛弱하다: 氣血이 不足하고 正氣가 虛弱하고 밖을 護衛하는 기능이 굳고 점차 論愼하지 않는데 바람이 불고 서늘해지면 쉽게 病邪에 感染한다. 예를 들면 陽虛한 환자는 쉽게 風寒에 感染하고 陰虛한 환자는 쉽게 燥熱에 感染한다. 臨床에서는 “虛體感冒”의 特殊한 情況으로 表現한다.

肺에 묵은 疾患이 있다: 만일 肺經에 痰熱이나 더러는 痰濕이 평소에 채워져 있고 肺衛의 調節機能이 低下하면 그때마다 쉽게 外邪를 불러들여 서로 끌어당겨서 發病한다. 또한 쉽게 반복하여 계속된다.

『證治匯補』의 「傷風篇」에서는 “肺家에 평소 痰熱이 있고 다시 風邪가 束縛하고 內火가 疏泄하지 않으면 이를 일컬어 寒暄이라 한다. 이것은 表裏가 모두 原因이 된 實證이다. 평소 元氣가 虛弱하고 表部의 腠理가 성글고 대략 삼가하는 것이 없으면 곧 風證이 뚜렷한 것은 이것은 表裏가 모두 原因이 된

註19) “正氣存內，邪不可干”

註20) “卒然逢疾風暴雨而不病者，蓋無虛，故邪不能獨傷人”

虛證이다.”^{주21)}라고 하였다.

(二)病邪가 肺衛를 침범하면 衛表不和가 主가 된다.

肺는 氣를 主管하고 呼吸을 맡고 있으며 위로는 喉와 通하고 鼻로 구멍이 열려 있고 鼻와 喉는 모두 氣體가 升降出入하는 길이다

肺는 皮毛를 主管하고 바깥을 護衛하는 職責을 맡고 있고 皮毛는 바로 人體一身의 가죽이다. 外邪를 막아내는 장벽이면서 衛氣는 肺에 통한다. 衛氣의 強弱과 肺의 기능과는 밀접히 상관한다.

만일 外邪가 口鼻. 皮毛로 侵入하면 肺衛가 먼저 그 충격을 당한다. 病邪가 皮膚로부터 들어가 안으로 肺에 합친다; 病邪가 口鼻로부터 위로 肺를 侵犯한다. 또한 病이 表衛까지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病邪에 感染한 뒤에 매우 빨리 衛表 및 上焦肺系の 症狀이 나타나서 衛表不和하고 肺가 宣發과 肅降의 機能을 잃어버려 病이 된다.

衛表가 不和하면 오싹오싹 추움, 發熱, 몸 아픔이 나타나고; 肺가 宣發과 肅降으로부터 위로부터 들어온다. 때문에 우선 衛表不和가 主가 된다. 이어서 肺系病變이 나타난다.

『素問』의 「咳論篇」에서는 “皮毛는 肺의 습이다. 皮毛는 먼저 邪氣를 받고 邪氣는 그 습을 따른다.”^{주22)}라고 하였다.

『素問』의 「風論篇」에서는 “...風氣는 皮膚의 사이에 貯藏하고 있어서 안으로 通하지 않고 밖으로는 배설하지 않는다. 風은 잘가고 자주 변환한다. 腠理가 열리면 물을 온몸에 끼얹은것 같이 춥고, 닫히면 熱이 나고 괴롭다.

註21) “肺家素有痰熱，復受風邪束縛，內火不得疏泄，謂之寒暄，此表裏兩因之實證也。有平昔元氣虛弱，表腠疏松，略有不謹，即顯風證者，此表裏兩因之虛證也。”

註22) “皮毛者，肺之合也，皮毛先受邪氣，邪氣以從其合也。”

그 추우면 먹고 마시는 것이 떨어진다. 그 더우면 肌肉이 마른다.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떨리고 먹을 수 없게 된다. 이듬하여 寒熱이라 한다.”^{주23)}

(三) 病理屬性을 寒·熱 두가지 類로 區別한다.

四時六氣가 다르고 人體의 반응도 차이가 난다. 때문에 臨床에서는 病理가 風寒. 風熱의 兩大類와 暑濕兼夾의 病證으로 표현된다. 病의 진행 과정 중에 또한 寒과 熱의 轉化나 더러는 섞여 있음을 볼수 있다. 만일에 風寒에 感染하여 表部가 發散하지 못하면 熱로 變化할 수 있고; 陰虛陽性한 體質이 처음에 風寒에 感染하면 쉽게 熱로 變化하는 경향이 있다. 風寒濕邪에 感染하면 皮毛가 막히고 病邪가 肺에 鬱滯하며 肺氣는 宣發機能을 잃어 버린다. 風熱暑燥의 病邪에 感染하면 皮毛가 疏泄하고 暢通하지 못하고 邪熱이 위로 쪼서 肺가 肅降機能을 잃는다.

(四) 病邪는 傳變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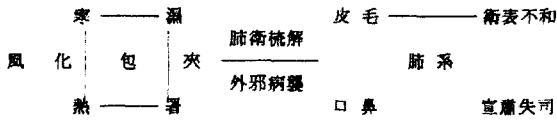
感染한 病邪가 가볍고 알으면 一般的으로 皮毛를 侵犯하는데 그치고 傳變은 적고 病의 進行過程은 짧으면서 쉽게 낫는다.

感染한 病邪가 깊고 무거우면 時行疫氣 人體를 損傷한다. 老人, 孺兒, 幼兒, 體質虛弱이나 더러는 원래 어떤 肺系에 慢性疾病이 있는 患者는 病邪가 表에 裏로 들어가 傳變은 迅速하여 어떤 습病症이나 續發症을 일으킬 수 있다.

『景岳全書』의 「傷風」에서는 “傷風의 病은 본래 外感으로 因한다. 단 病邪가 甚하면서 깊은 者는 골고루 經略에 傳해져 곧 傷寒이

註23) “...風氣藏於皮膚之間，內不得通，外不得泄，風者善行數變，腠理開則漸然寒，閉則熱而悶，其寒也則衰食飲，其熱也則消肌肉，故使人嘔粟而不能食，名曰寒熱。”

된다. 病邪가 가벼우면서 얇은 者는 皮毛를 侵犯하는데 그친다. 곧 傷風이 된다.”^{註24)}라고 하였다.



二. 肺系溫病과의 早期鑑別

肺系溫病의 早期에는 每번 感冒의 症狀과 類似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들면 風溫의 初期는 곧 지극히 風熱感冒證과 類似하다. 이로 因하여 各種溫熱病이 流行하는 季節에는 尙 特別히 여기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病情의 變化에 대하여 엄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感冒: 發熱의 대다수는 높지 않다. 더러는 發熱이 없다. 解表藥을 服用하면 곧 汗이 나오면서 몸이 서늘해지고 脈은 高요해진다.

溫病: 發熱이 있고 甚하면 高熱이 난다. 解表藥을 服用한 뒤에 汗이 나고 熱이 비록 잠시 내려가나 단지 脈은 빠르고 高요하지 않다. 몸에 熱이 오래지 않아 곧 다시 난다. 또한 傳變하여 裏로 들어가는 症候를 볼 수 있어 氣喘, 가슴아픔이 나고 甚하면 精神昏迷, 驚厥譫妄 등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治療가 適當하지 않으면 兪증한 뒤의 結果가 일어날 수 있다.

六. 辨證論治

一. 一般症狀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으

註24) “傷風之病, 本有外感, 但邪甚而深者, 遍傳經絡即爲傷寒, 邪輕而淺者, 止犯皮毛, 即爲傷風.”

며 더러는 기침이 나고 목구멍이 간지럽거나 아프다. 이는 肺의 宣發과 肅降機能이 안되어 일어나는 症狀이다. 오싹오싹 추워 찬 것이 싫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몸이 괴롭고 甚하면 四肢가 시리고 쭈서다. 이는 表衛가 調和를 잃어버려서이다. 病의 進行情程은 一般적으로 5-7日 前後이다.

예를 들면 時行感冒의 경우는 發病이 비교적 急하고 症狀는 비교적 무거운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뚜렷한 流行性이 있고 동일한 지역에 同時적으로 여러 사람이 發病할 수 있고 또한 傳變이 나타날 수 있다.

이상을 總括하면, 病邪의 感染에 가볍고 무거움이 있고 正氣의 強弱은 다르고 四時六氣는 區別이 된다. 때문에 症狀에는 甚하지 않음과 甚함이 있고 脈象도 역시 各各 差異가 난다.

二. 辨證要點

本病은 病邪가 肺衛를 侵犯한다. 때문에 表實證에 屬한다.

1. 表寒과 表熱을 分明하게 辨別한다.

症狀	惡寒	發熱	汗出情況	咽紅腫痛	舌苔	脈狀
表寒證	무겁다	가볍다	無汗	없다	苔薄白	脈浮緊
表熱證	가볍다	무겁다	少寒或有汗	있다	苔薄黃	脈浮數

2. 發病季節을 고려하고 夾暑, 夾濕, 夾燥의 情況을 區別하여야 한다.

三. 治療原則

風寒證 —— 辛溫發寒

解表達邪

風熱證 —— 辛涼清解

病因病機示意圖

五. 類似證鑑別

一. 傷風과 時行感冒의 區別

	病 因	發病季節과 特徵적인 點	病情表現	傳變의 有無
傷 風	外感六淫이다. 風이主가된다.	겨울과 봄철의 氣候 變化가 많을 때 發病率이 높다. 一般的으로 散發性을 띤다.	病淸이 대다수 가볍다. 全身症狀이 무겁지 않다.	傳變이 없다.
時行感冒	時行疫毒	季節에 局限되지 않는다. 廣範圍 하게 傳染하고 流行한다.	病情이 대다수 무겁고, 病이 虛하고, 全身增産이 뚜렷하다.	傳變이 발생할수 있다. 熱로 變化하여 裏로들어가고, 猝發性이고 其他病과 合病한다

濕 —— 化濕
兼夾 暑 —— 祛暑
燥 —— 清燥, 潤燥

四. 證治分類

(一) 風寒證

『素問』의 「陰陽應象大論」에서는 “病이 비로서 일어난다… 때문에 그 가벼움으로 因하여 이를 날린다.”^{註25)}라 하였고 또한 “그 病邪가 있는 것은 汗을 내어서 形體를 적신다.; 그 皮에 있는 것은 汗을 내어서 이를 發汗한다.”^{註26)}라고 하였다. 청(淸)時代의 예티엔스(葉天士)는 “위에 있으면 汗을 내는 것이 옳다.”^{註27)}라고 하였다.

註25) “病之始起也… 故因其輕而揚之”

註26) “… 其有邪者, 潰形以爲汗; 其在皮者, 汗而發之; …”

註27) “在衛, 汗之可也.”

1. 症狀 및 分析: 오싹오싹 추움, 發熱, 땀이 없음은 風寒이 밖에서 人體를 束縛하면 衛陽이 막혀서이고; 머리아픔, 뼈마디가 시고 쭈시는 것은 淸陽이 펴지지 못하고, 絡脈이 調和를 잃어버려서이고;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오며 목구멍이 간지럽고 기침이 나는 것은 人體가 風寒을 위에서 받아서 廢棄의 宣發機能이 안되서이고; 渴症이 없거나 더러는 渴症 나는데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싶어서하는 것은 寒邪가 밖에서 人體를 侵犯하여서이다. 때문에 熱象이 없다; 舌苔가 薄白하고 舌質은 潤澤하고 脈象은 浮緊한 것은 모두 表寒症候이다.

2. 治法: 辛溫解表法을 쓴다.

3. 方藥: 荊防達表湯이나 더러는 荊防敗毒散加減을 活用한다. 荊防達表湯: 疏風散寒한다. 오싹오싹 춥고 땀이 없고 熱이 가볍고 寒은 甚한 患者에게 適當하다. 荊防敗毒散: 辛溫發汗하고 疏風祛濕한다. 風寒夾濕. 오싹오싹 추움. 發熱. 땀이없음. 머리아픔 및 時行感冒에 사용한다.

(1) 方解: 荊防達表湯: 荊芥, 防風, 蘇葉, 蔥頭, 白芷, 生薑은 解表散寒하고; 橘紅, 杏仁은 化痰利肺하고; 赤茯苓, 焦六曲은 化濕하고 運化機能을 돕는다. 荊防敗毒散: 荊芥, 防風은 解表散寒하고; 柴胡, 薄荷는 疏表解熱하고; 羌活, 獨活, 川芎은 散風祛濕하고; 枳殼, 前胡, 枝梗, 茯苓, 甘草는 理氣化痰하고 實胸利肺한다.

(2) 加減: 表寒重: 麻黃, 桂枝를 보태어 辛溫散寒의 힘을 더 強하게 한다.

兼證: 風寒夾濕證

*風寒에 濕을 끼면 衛表가 疲困하고 막혀서 經絡의 運行이 막히게 된다.

*症狀: 몸에 熱이 나지만 보잘 것 없다. 오싹오싹 춥고 땀이 적다. 머리에 무언을 뒤집어 쓸때의 무겁고 팽팽하고 답답한 느낌이 난다. 팔다리의 뼈마디가 시리고 무겁고 쭈신다. 기침이 나고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난다.舌苔는 白色이면서 끈적끈적하고 脈象은 濡하다.

*治法: 疏表祛濕法을 쓴다

*方藥: 羌活勝濕湯加減을 活用한다. 本方은 宣表祛濕하는 作用을 한다. 方中の 羌活 獨活은 祛風勝濕하고, 防風, 薑本은 疏風散寒하고, 川芎 蔓荊子는 祛風消上하고, 甘草는 和 中한다. 땀이 적으면 豆卷을 보태어 解表祛濕하고, 머리 아프고 몸이 아프면 白芷를 보태어 祛風散寒하고, 胃腕部가 걸리면서 더부룩하고 舌苔가 끈적끈적하면 蒼朮, 厚朴을

보태어 燥濕寬中하고, 기침하는데 끈끈한 痰이 나오면 半夏, 陣皮를 보태어 宜肺化痰한다.

(二) 風熱證

1. 症狀 및 分析: 몸에 熱이 나고 약간의 바람을 심어하고 땀이 나는데 보잘것 없는 것은 風熱이 表部를 침범하여 熱이 肌肉과 腠理에 鬱滯하여 衛表가 調和를 잃어서이고, 머리가 부어오르고 아프며 눈이 부어 오르며 얼굴색이 붉게 되는것이 많은 것은 風熱이 위를 어지럽혀서이고, 목구멍이 붓고 아프며 목이 마르고 입에서는 渴症이 나고 코에서는 탁한 콧물이 흐르는 것은 風熱을 위에서 받아 清道가 찌져서이고 ; 기침이 나는데 痰이 끈적거리거나 누런 것은 風熱이 肺를 侵犯하여 肺가 肅降機能이 안되서이고 ; 舌苔가 白膩黃하고 脈象이 浮數한 것은 風熱이 肺衛를 侵犯하여 나타난 것이다.

2. 治法 : 辛涼解表를 쓴다.

3. 方藥 : 銀翹散. 蔥豉枝梗湯加減을 活用한다. 두 處方은 모두 疏表泄熱하고 輕宣肺氣한다. 銀翹散은 清熱解毒에 長點이 있고 ; 蔥豉枝梗湯은 清宣解表에 중요하다.

(1) 方解 : 銀翹散 : 金銀花. 連翹. 薄荷. 荊芥穗. 豆豉는 清熱解毒하고 辛涼疏解하며 ; 蘆根. 牛蒡子 生甘草는 清宣肺氣하고 利咽化痰한다.

(2) 加減 : 머리가 부어오르는것 같고 아프면 桑葉. 菊花를 보태어 清利頭目하고 ; 기침이 나는데 痰이 많으면 大貝母, 前胡, 杏仁을 보태어 清肺化痰하고. 길은 누른색의 痰을 뱉으면 黃芩. 知母를 配合하고 ; 熱이 甚하면 石膏 鴨跖草를 配合하고 ; 熱毒症狀

이 뚜렷하면 大靑葉, 薄公英, 蚤休^{註28)}를 보태어 清熱解毒하고; 목이 붓고 아프면 一枝黃花, 土牛, 玄參을 보태어 解毒利咽하고 별도로 冰硼散, 錫類散을 목에 붙여 넣고; 燥로 變化하여 人體의 津液이 損傷하고 입이 마르고 목이 乾燥하고 舌質이 紅色이면 南沙參, 天花粉, 梨皮를 配合하여 清肺潤燥하고 辛溫의 藥品이 配伍되지 않도록 꺼려야 한다.

兼證 : 1. 外寒內熱證 : 人體가 外部에서 風寒을 받아 表寒이 아직은 풀리지 않고 裏에 들어가 熱로 變化하고; 더러는 肺熱이 평소에 旺盛한데 風寒이 外部에서 束縛하여 熱이 寒에 阻止되었다.

症狀 : 煩熱이 나고 오싹오싹 춥고 땀이 없거나 적고 뺨이 푸시고 咳逆氣急하고 痰이 걸쭉하고 목소리가 쉬었고 목구멍이 아프며 舌苔는 흰색이 누른색을 덮고 舌邊尖紅하고 脈象은 數하다.

治法 : 解表清裏法을 쓴다.

方藥 : 麻杏甘苦湯加味를 活用한다. 本方은 解表清熱宣肺의 作用이 있다. 方中에서 麻黃이 石膏와 합치면 清宣肺熱하고 杏仁과 配伍하면 宣利肺氣하고 甘草는 모든 藥을 調和한다. 表證이 무거우면 豆豉, 薄荷를 보태고; 裏熱이甚하면 黃芩, 山梔子, 蘆根을 보태고; 기침이甚하면 前胡, 桑白皮를 보탠다.

2. 風熱兼燥 : 風熱이 燥로 變化하여 津液을 損傷하거나 더러는 가을철 溫燥에 感染되어 發病한다.

症狀 : 몸에 熱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코가 마르고 목이 마르다. 기침이 나는데 痰이

註28) 蚤休: (개) 감수를 말한다.

없거나 적고 입에서는 渴症이 나고 舌紅한다. 가을철에 많이 나타난다.

方藥 : 銀翹散合桑杏湯加減을 活用하는데 다시 여기에 辛溫의 藥品을 配伍하는것은 적당치 않다.

(三) 暑濕證

1. 症狀 및 分析 : 여름철에 病邪에 感染하여 몸에 熱이 나고 약간 바람을 싫어하고 땀이 적고 팔다리가 시고 무겁고 더러는 쉬는 것은 暑濕이 表部를 損傷하여 表衛가 調和를 잃어서이고; 머리가 昏迷하고 무겁고 부어오르는 것같고 아픈 것은 風暑가 濕을 끼어 위로 淸空을 侵犯해서이고; 기침이 나는데 痰이 끈적끈적하고 코에서 濁한 콧물이 흘러 나오는 것은 暑熱이 肺를 침범하여 肺氣가 맑지 않아서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입에서는 渴症이 나고 小便의 量이 적고 색이 붉은것은 暑熱이 안으로 擾亂하니 몹시 뜨거워서 津液이 損傷을 받아서이고; 가슴이 괴롭고 胃脘部가 걸리고 더부룩하고 속이 답답하고 메스메스하고 똥이 뭉고 입안이 느끼하고 渴症이 나지만 많이 마시지 않는것은 濕熱이 가운데 막혀서 氣의 運動이 퍼지지 않아서이다. 舌苔가 薄黃하면서 끈적끈적하고 脈象이 濡數한 것은 暑熱夾濕의 特徵이다.

2. 治法 : 清暑祛濕解表法을 쓴다.

3. 方藥 : 新加香薷飲加減을 活用한다. 本方은 清暑化濕하는 作用이 있다. 여름철 暑濕感冒에 사용한다.

(1) 方解: 金銀花, 連翹는 清解暑熱하고; 香薷는 發汗解表하고; 厚朴, 白扁豆는 化濕和中한다.

(2) 加減: 暑熱에 치우쳐 旺盛하면 黃連.

山梔子나 黃芩, 青蒿를 보태어 淸暑泄熱하고 또한 新鮮한 荷葉, 新鮮한 蘆根을 配合할 수 있고; 濕이 衛表를 疲因하게 하면 豆卷, 藿香, 佩蘭 등을 보태어 芳化宣表하고; 裏濕이 치우쳐 무거우면 蒼朮, 白蔻仁, 法半夏, 陣皮를 보태어 化濕和中하고; 裏熱이 旺盛하면서 小便이 적고 붉으면 六一散, 赤茯苓을 보태어 淸熱利濕한다.

辨證: 虛한 體質의 感冒는 평소에 몸이 강하지 않고 病을 앓고 난뒤에 몸이 虛弱하고 氣虛 더러는 陰虛하여 밖을 護衛하는 것이 굳지 않았는데 反復해서 病邪를 感染하거나 더러는 늘 感冒가 계속되어 낫기가 어렵다.

(一) 氣虛感冒

症狀 및 分析: 오싹오싹 추운 것이 比較的甚하고 熱이 나고 땀이 없고 몸이 괴로우며 疲倦하고 게으른 것은 風寒이 밖에서 묶고 氣虛하여 無力해서이고; 기침이 나고 痰을 뱉는데 힘이 없는 것은 肺氣가 宣發機能을 잃어버려서이고; 舌苔가 薄白하고 脈象이 浮而無力한 것은 氣虛의 症候이다.

治法: 益氣解表를 쓴다.

方藥: 參蘇飲을 活用한다. 本方은 益氣化痰과 疏風解表의 功을 지니고 있다.

(1) 方解: 人蔘, 甘草, 茯苓은 補氣하여 巨事하고; 蘇葉, 葛根은 疏風解表하고; 半夏, 陣皮, 前胡, 桔梗은 宣理肺氣하고 化痰止咳하고; 木香, 枳殼은 理氣調中하고; 生薑, 大棗는 調和營衛한다.

(2) 加減: 表虛自汗이면 黃芪, 自朮, 防風을 보태어 益氣固表한다. 平素自汗이고 身體가 쉽게 風邪를 感染하는 경우는 또한 玉屏風散을 자주 服用하여 益氣固表하고 밖을 護衛하는 機能을 더 強하게 하여 感冒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豫防한다.

(二) 陽虛感冒

症狀 및 分析: 오싹오싹 추운 것이 무겁고 熱 나는 것이 가볍고 머리와 몸이 아프고 땀이 없는 것은 風寒이 밖에서 肌表를 묶어서이고; 얼굴이 하얗고 말소리가 낮고 작다. 팔다리가 따듯하지 않고 더러는 自汗하는 것은 陽虛하여 體表와 四肢가 따듯하게 되지 않아서이고, 陽虛하면 氣도 不足하여 自汗하고 말소리가 낮고 작아지고; 舌質이 淡하면서 붉고 舌苔는 白色이고 脈象은 沈無力한 것은 陽虛의 特徵이다.

治法: 助陽解表法을 쓴다.

方藥: 麻黃附子細辛湯을 活用한다. 本方은 溫經助陽散寒의 功이 있다.

(1) 方解: 附子は 溫經助陽하고; 麻黃은 發汗解表하고; 細辛은 안으로 少陰寒邪를 흐들어트리고 밖으로는 太陽의 表를 푼다.

(2) 加減: 氣虛自汗을 兼하면 黃芪, 炙甘草를 보탠다.

(三) 血虛感冒

症狀 및 分析: 머리가 아프고 몸에 熱이나 고 찬 바람을 약간 싫어하는 것은 風寒이 表部를 묶고 廢位가 造化를 잃어버려서이고; 땀이 없거나 적은것은 血虛하여 汗의 源泉이 채워지지 않아서이고; 얼굴색이 華色이 없고 입술이 角質化하고 색이 옅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운 것은 血虛하여 營養供給이 안되고 心이 기르지를 못해서이고; 舌質이 옅은 색을 띠고 舌苔는 白色이고 脈象은 細無力하거나 浮한 것은 血虛의 特徵이다.

治法: 養血解表法을 쓴다.

方藥: 蔥白七味飲加減을 活用한다. 本方은 養血滋陰解表散寒의 功이 있어 血虛感冒의 患者에게 適當하다.

(1) 方解: 蔥白, 豆豉, 乾葛, 生薑은 解表하고; 地黃, 麥門冬은 養血滋陰하고 蔥白은 兼하여 血脈을 通하게 한다.

(2) 加減: 오삭오삭 추운 것이 무거우면 蘇葉, 荊芥를 보태고; 熱이 무거우면 金銀花, 連翹나 黃芩을 보태고; 만일에 出血症이 있으면 阿膠珠, 藕節, 三七根, 自給을 보태고; 肥의 運化機能이 健康하지 못하면 陣皮, 砂仁을 보탠다.

(四) 陰虛感冒

症狀 및 分析: 몸에 熱이 나고 찬 바람을 약간 싫어하고 땀이 적은 것은 陰虛한 體質이 쉽게 風熱을 밖으로부터 侵入받아서 津液이 땀을 만들어 病邪에 도달하지 못해서이고; 머리가 昏迷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입이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고 痰은 적은 것은 陰虛熱鬱로 津液이 損傷하여서이고; 舌質은 紅色이고 舌苔는 적고 脈象이 細數한 것은 陰津이 모자라는 現象이다.

治法: 滋陰解表法을 쓴다.

方藥: 加減葳蕤湯을 活用한다. 陰虛한데 風熱外邪를 感染하여 된 疾患에 적절히 쓴다.

(1) 方解: 玉竹은 滋陰하여 痰의 源泉을 돕고; 自薇는 清熱和陰하고; 蔥白, 薄荷, 桔梗, 豆豉는 疏表散風하고; 甘草, 大棗는 甘潤和中한다.

(2) 加減: 陰의 損傷이 두렵하고 목이 마르

고 입에서 渴症이 甚하면 沙參麥門冬을 보태어 養陰生津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渴症이 比較的 甚하면 黃連, 竹葉, 天花粉을 보태어 清熱生津除煩하고; 기침이 나고 목이 마르고 痰을 뱉어도 개운치 않으면 牛蒡子, 射干, 瓜蒌皮를 보태어 利咽化痰한다.

五. 其他治療

(一) 鍼灸

1. 感冒가 자주 걸리는 사람은 大椎, 肺俞나 足三里혈을 뽑아서 쑥으로 뜸을 뜨는데 매일 1회 한다.

2. 耳鍼을 組織속에 넣어두다: 腎上腺, 頭, 肺, 鼻 等穴에 耳鍼으로 刺鍼한다.

七. 豫防과 看護

一. 豫防

1. 간단한 經驗方

(1) 겨울과 봄철에는 風寒이 철에 맞아 貫衆湯을 服用하는 것이 좋다: 本方은 貫衆, 紫蘇, 荊芥 各 10그램, 甘草 3그램이다. 물로 끓여서 곧 服用하고 계속해서 三日을 服用한다.

(2) 여름철에는 暑濕이 철에 맞아 藿佩湯을 服用하는 것이 좋다: 本方은 藿香, 佩蘭 各 5그램, 薄荷 2그램이다. 끓여서 자주 服用한다.

(3) 만일 流行感冒이면 貫衆 10그램, 板藍根 12그램(더러는 大靑葉을 쓴다) 鴨跖草, 生甘草 등을 끓여서 服用하는데 하루에 한劑를 服用한다.

感冒辨證論治의 表

證型		風寒證	風熱證	暑濕證
辨證		風寒이 表를 堵어서 肺衛가 宣發機能없음	風熱이 表를 侵犯하여 肺氣가 調和없음	暑濕이 表를 損傷하여 肺衛가 暢達없음
主	衛表證	<p>甚함</p> <p>가벼움(혹은 없다) 없다</p> <p>머리 아프고 사지가 시리고 아픔</p>	<p>가벼움(더러는 바람을 싫어함) 甚함</p> <p>있다(적다)</p> <p>머리가 부어오르는 것 같고 아프다</p>	<p>오삭오삭 추움이 약간 있음</p> <p>몸에 熱이 난다</p> <p>땀이 적다</p> <p>머리가 昏迷. 무거움 부음. 아프고 肢體가 시리고 아픔</p>
	肺	<p>코</p> <p>목기침</p> <p>痰</p>	<p>코막히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재채기 많다</p> <p>간질간질하다</p> <p>기침이 나고 목소리가 가라앉았다</p> <p>뭉고 얇으며 色은 희다</p>	<p>코에서 濁한 물이 흐른다</p> <p>더러는 아프다</p> <p>기침이 난다</p> <p>痰이 있어 끈적끈적하고 누렁거나 희다</p>
證	兼證	<p>渴症이 없고 더러는 渴症이 나면 따뜻한 飲料를 좋아한다</p>	<p>입이 말라 마시고 싶어 한다</p>	<p>가슴이 답답함. 渴症 小便이 적고 붉음. 가슴이 괴롭고 胃腕部가 더부룩함. 메스꺼움. 똥이 묽음. 입안이 느끼함. 渴症이 나도 많이 안 마신다.</p>
	舌	薄白	<p>얇고 희면서 마르고</p> <p>혹은 얇은 누렁색이고 邊과 끝은 붉다</p>	<p>얇은 누렁색이면서</p> <p>진득진득하거나 누렁진득진득하다.</p>
	脈象	浮나 緊을 兼한다	浮數	濡數
	治法	辛溫解表	辛涼解表	清暑祛濕解表
	主方	荊防達表湯. 荊防敗毒散	銀翹散. 蔥豉桔梗湯	新加香薷飲

2. 鍛鍊을 强하게 하고 적당히 室外에서 活動을 하면 體質增強에 이롭고 病을 豫防하는 能力이 向上된다.

3. 추위를 豫防하여 保温에 注意하여야 한다. 氣候가 차고 더운 변화가 있을 경우 제 때에 옷을 적절히 입고 비에 젖어서 차가움을 받아서도 안되고 지나치게 피로하게 해서 도 안된다.

4. 感冒가 流行하는 季節에는 患者가 公共場所에 가서 活動을 하지 못하게 하여 번갈아 感染되는 것을 防止하여야 한다.

5. 食醋로 그을려 죄는 法: 室内을 所得한다. 每 立方미터의 空間에 食醋 5-10 мили리터를 사용하고 물은 1-2배를 보태어 稀釋한 뒤 2시간 동안 熱을 가하여 쪄서 그을린다. 매일 더러는 하루건너서 1회를 하면 계절에 流行하는 것을 豫防할 수 있다.

二. 看護

1. 藥을 服用하는데 注意가 要求된다: (1) 끓여 올근 藥은 오래 끓이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2) 藥은 따뜻하게 服用하여야 한다. 服用한 뒤에는 바람을 避하고 이불을 덮고 땀을 내는 것이 좋다. 더러는 따뜻한 죽이나 승능을 먹어서 藥의 效力을 돕고 땀나기를 바라는데 全身에 약간의 땀이 나는 것이 적당하다. 절대로 큰 땀이 줄줄 흐르는 것은 꺼려해야 한다.

(3) 땀이 난뒤에는 바람을 避하고 保温을 하며 다시 感染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아울러 휴식에 주의하고 음식은 流動食이나 半流動食이 좋다.

2. 藥을 服用한 뒤의 情況을 세밀히 觀察하여야 한다: 藥을 服用한 뒤에 땀이 나오면 病邪가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고 땀이 없으면 病邪가 아직은 제거되지 않은 것이다. 땀이 난뒤에 몸이 서늘해지고 脈象이 조용해지면 病邪가 풀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땀이 나왔으나 熱이 감소되지 않거나 무려났다가는 다시 나고 또한 脈象이 數하고 조용하지 않은 것은 病邪가 아직은 풀리지 않은 것을 提示하는 것이다. 다시 불이 붙어서 甚하면 其他의 病變이 發生할 수 있다.

3. 感染한 病邪의 다른 性質에 依하여 分別해서 辨證하고 看護를 實施한다.

八. 結 論

1. 特徵: 主症은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 나고 기침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오싹오싹 춥고 熱이 나고 全身이 상쾌하지 않음 등이다.

2. 病因病理: 外感六淫과 時行病毒이 皮毛와 입 그리고 코를 通하여 侵入하고 侵入한 兵士가 肺衛를 侵犯하고 衛表가 調和하지 않아서이다.

3. 辨證原則: 모두 表實證에 屬하는데 단지 風寒, 風熱과 暑濕이 兼하고 끼었는 證인지를 分明히 해야 한다. 治療할 때에는 解表發汗을 주로 하고 風寒이면 辛溫法이 알맞고 風熱이면 辛涼法이 적당하고 暑濕이면 清暑祛濕法이 적당하다. 流行性 感冒의 重症에는 清熱解毒의 藥品을 應用하여야 한다.

4. 證에 臨하는 要點: (1) 寒과 熱의 二證은 分明히 구별하여 治療하는 것이 알맞다: 만일에 風寒에 잘못하여 辛涼法을 사용하면 땀은 쉽게 나오지않고 病邪는 밖으로 到達하

기 어렵고 도리어 오랫동안 放置하고 빨리 풀지 않으면 甚할경우 其他의 病變이 發生할 수 있고; 風熱에 잘못하여 辛溫法을 사용하면 熱을 돕고 津液을 乾燥하게하고 血을 움직이는 弊端이 있거나 더러는 傳變을 일으킨다.

만일에 寒에 치우쳐 있는지 熱에 치우쳐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患者는 辛平輕劑를 뽑아서 輕清透邪하고 處方은 蔥豉湯類를 선택한다.

(2) 寒과 熱이 섞여서 나타는 것은 溫涼을 함께 사용하고 아울러 寒과 熱의 主와 다음 및 그 變化發展에 依하여 辛溫과 辛涼藥을 적당히 配合하여 解表清裏하고 宣肺泄熱한다. 處方으로는 麻杏石甘湯이나 더러는 大青龍湯이 뜻에 맞다.

以外에 만일 기타의 併發證과 挾雜證이 있으면 적당히 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3) 虛弱한 體質의 感冒에는 辛散法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단순히 祛邪하고 강제로 땀을 내서는 안된다. 거듭해서 正氣를 損傷한다. 治法은 扶正達邪가 적당하고 疏散藥中에 參酌하여 補正의 藥品을 보탠다. 氣虛, 陰虛, 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거기에 맞는 治療對策을 세워야 한다.

(4) 禁忌: 感冒는 대다수 表實證에 屬한다. 治療法은 疏散이 순조롭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補斂의 藥品을 꺼려한다. 病邪를 머무르게 하기 때문이다. 卽 虛弱한 體質의 感冒는 당연히 解表藥中에서 扶正의 藥品을 참작하여 보태서 達邪하여야 하니 補養의 一味는 알맞지 않다.

九. 文獻의 記錄을 간추림

『素問』의 「玉氣眞藏論」에서는 “그러므로 風은 百病의 어른이다. 風寒이 人體에 侵入

하면 人體의 털은 마침내 곧게 서고 皮膚는 단혀서 熱이 난다……”^{註30)}라 하였다.

『症因脈治』의 「傷寒總論」에서는 “外感風寒은 털도구멍을 通하여 들어와 반드시 털구멍을 通하여 나간다. 때문에 傷寒發熱證은 먼저 거듭 發表解氣하여야 한다.”^{註31)}라 하였다.

『明醫指掌』의 「傷風證」에서는 “外感으로 因한 病은 辛涼, 辛溫의 方劑로 이를 發散한다. 內受로 因한 病은 火가 甚하여 생긴 風은 涼寒苦에 升散의 方劑를 兼하여 이를 擘다. 한가지 治療를 고집해서는 안된다.”^{註32)}라 하였다.

『時病論』의 「傷風」에서는 “傷風의 病은 곧 『仲景書』에 있는 風傷衛의 證이다……”^{註33)}라 하였다.

『時病論』의 「春傷於風大兼意」에서는 “…… 風은 六氣의 領袖로 모든 氣를 統領할 수 있다. 만일에 昃철을 당해서 오히려 寒이 棼棼하면 風中에 드디어 寒氣를 끼는데 이것에 感染하면 風寒이 되고; 더러는 그 기후가 暴熱이면 風中에 드디어 熱氣를 끼고 이것에 感染하면 風熱이 된다……”^{註34)}라 하였다.

『醫學源流論』의 「傷風難治論」에서는 “대개 傷風의 疾患은 皮毛에서 肺로 들어가는데 폐는 嬌臟이라 寒과 熱이 적당하지 않다.”^{註35)}라 하였다.

註30) “是故風者百病之長也, 冷風寒客於人, 使人毫毛畢直, 皮膚閉而爲熱……”

註31) “外感風寒, 從毛竅而入, 必要從毛竅而出, 故傷寒發熱症, 首重發表解肌.”

註32) “因外感者, 以辛涼, 辛溫之劑發散之. 因內受者, 火甚生風也, 以涼寒苦, 兼升散之劑解之, 不可執一治也.”

註33) “傷風之病, 卽 『仲景書』中風傷衛之證也……”

註34) “風爲六氣之領袖, 能統諸氣. 如當春尚有餘寒, 則風中遂夾寒氣, 有感之者是爲風寒; 其或天氣暴熱, 則風中遂夾熱氣, 有感之者是爲風熱”

註35) “蓋傷風之疾, 由皮毛以入肺, 肺爲嬌臟, 寒熱皆所不宜.”

『雜病源流犀燭』의 「感冒證源流」에서는 “風邪가 人體를 侵犯하면 어느 곳의 感染을 막론하고 반드시 안으로 肺를 침범하게된다.”^{주36)}라 하였다.

『筆花醫鏡』의 「肺邪」에서는 “肺에는 裏症도 있고 表症도 있다. 肺는 皮毛를 主管하기 때문이다. 病邪가 表部에 있으면 右寸脈은 반드시 浮하고 그 症狀은 熱이 나고 재채기와 코가 막히고 기침이나고 바람을 싫어하고 가슴이 그득차고 아프며 목이 아프고 코가 마르고 暑風에 損傷하고 時疫에 적중된다. …… 肺寒의 症은 外感이 많고 右寸脈은 반드시 遲하고 그 症狀은 많은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고 오싹오싹 춥고 얼굴색이 위축되고 희다.”^{주37)}라 하였다.

『醫學心悟』의 「論汗法」에서는 “땀은 흐를어진다. …… 風寒이 처음에 人體를 침범하면 머리가 아프고 熱이 나면서 오싹오싹 춥고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무거우면서 몸이 아프다. 이것은 皮毛가 病邪를 받은 것으로 治療法은 당연히 땀을 내야 한다. ……”^{주38)}라 하였고, 또 “모든 一切의 陽虛患者는 모두 補中發汗이 적당하다. 一切의 陰虛患者는 모두 養陰發汗이 알맞다.”^{주39)}

註36) “風邪襲人，不論何處感受必內歸於肺。”

註37) “肺有裏症，亦有表症，肺主皮毛故也。邪在表，右寸脈必浮，其症爲發熱，爲噴嚏鼻塞，爲咳，爲嗽，爲畏風，爲胸滿痛，爲喉疼，爲鼻燥，爲傷暑風，爲中時疫。…… 肺寒之症，外感居多，脈右寸必遲，其症爲清涕，爲咳嗽，爲惡寒，爲面色痿白。”

註38) “汗者，散也。…… 風寒初客於人也，頭痛發熱而惡寒，鼻塞聲重而體痛，此皮毛受病，法當汗之。……”

註39) “凡一切陽虛者，皆宜補中發汗。一切陰虛者，皆宜養陰發寒。”